

## 미후네노타키 폭포

미후네노타키 폭포는 현지에서 계절마다 바뀌는 장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이 걷혀 땅이 깨끗한 여름에는 잠시 걸으면 이끼 낀 나무들 사이와 개울을 지나쳐 폭포 맨 아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산마루에 위치한 폭포는 50m 높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방으로 반짝이는 물보라가 입니다. 폭포 아래에서 소용돌이치는 웅덩이는 산등성이를 따라 흘러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겨울에는 기온과 바람 상태가 맞으면 폭포 전체가 복잡한 얼음 기둥이 됩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이는 관계로 산길까지 도로가 폐쇄되지만, 장비를 잘 갖춘 등산객은 한 시간에 약 3km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미후네노타키 폭포는 1월 하순부터 2월 초까지는 자주 얼어 붙습니다.

미후네노타키 폭포는 현존하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문헌인 고지키(고사기)에 712년 처음으로 기록된 이히카로 불리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전설상의 초대 천황으로 알려진 진무 천황이 수도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남서부 지방에서부터 여행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방랑하던 천황은 빛나는 우물과 그를 안내해 준 '이히카'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신을 마주쳤다고 합니다.